



함께 알아가는 생태신학 32

# “지구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입니다”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가 개최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2℃보다 훨씬 낮게, 가능한 1.5℃ 아래로 제한할 것을 합의한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여러 지도자가 연설에 나섰다, 특히 위 사진에 나온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 사이먼 코페의 영상이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육지였지만 이제는 무릎까지 바닷물이 차오른 곳에서 바지를 걸어 올린 채 연설하는 모습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기후변화 속도라면 저 모습이 투발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상기시켰습니다.

COP26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과 세계 각지에서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여러 시위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총회의 결과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긍정적인 성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와 같이 방대한 삼림을 가진 여러 나라가 2030년까지 삼림 파괴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기로 한 ‘국제메탄서약’이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 대해 ‘실망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의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애초의 목표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으로 후퇴했으며 그 기한도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국이 제시한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넘어 2.7℃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더 강화된 목표와 지침을 세울 과제가 차기 총회로 넘겨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되돌려주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우리 어머니인 지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16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위에 나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바로 그 자산을 돌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닐까요? 내년 총회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더 귀 기울여 지구의 미래를 위해 훨씬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루길 희망해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역시 교황님께서 초대하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곶벚나무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